

제 29차 정기총회 이모저모



▲임연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약관리규정에 부칙조항으로 있던 생산농가의 자유로운 판로허용 내용을 관리규정 본문 안에 명문화 하도록 한점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대응한 결과이자 성과"라고 평가했다.

▼농림부 채소특작과 김홍범 사무관은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때 일수록 생약인들이 국산 약재 고품질화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평소 우리생약살리기와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 6명에게 임연학 회장이 협회장상을 시상하고 있다.(사진은 경남 남해군 김우홍 사무소장)



▶약 1백50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제29차 정기총회에서는 안정기금 손실에 대한 책임문제와 함께 사무국 적자운영에 따른 집행부의 경영상의 허점이 지적됐다.

회원들 격려와 지지 덕분

○...임연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은 IMF한파로 생약업계는 물론이고 생약재배 농민들에게도 참으로 힘든 한해였음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우리 생약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고 회원들을 격려하고 한약관리규정 안에 부칙조항으로 있던 "생산농가의 자유로운 판로허용" 내용을 관리규정 본문 안에 명문화 하도록 한점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대응한 결과이자 성과"라고 평가하는 한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내기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호소했다.

생약고품질화 최선당부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농림부 채소특작과 김홍범 생약담당 사무관은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때일수록 생약인들이 국산약재 고품질화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에서도 생산·유통에 관한 지원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했다.

감사 보고

○...감사보고에서 허영 감사는 지금까지의 안정기금 운영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이에대한 보다 책임있는 운영과 대책마련을 요구. 또 "그 동안 제약사에서 대량 소비해 오던 약재 '미' 종류가 수입엑스제로 대체되면서 작약미·천궁미·당귀미 등이 그대로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품용이나 엑스제로의 반입을 제한할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정기금 손실 책임한계 분명히 해야

○...이날 총회에서 가장 많이 도마위에 오른 대상은 안정기금 운용문제. 회원들은 "안기금이 당초 얼마였는데 지금

시가로 계산해 얼마가 남아있는지 밝혀줄 것"과 안기금 손실금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줄 것을 회원들은 촉구하기도.

협회조직 변화돼야

○...전주 완주시 강이상 사무소장은 "집행부 고충 충분히 이해하나 사무국에서 연4천만원 이상 결손이 났다는 것은 경영상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 분위기 속에서 우리 협회도 새로운 대안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협회조직이 이젠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로운 변화가 이뤄져야 할 시기를 강조했다.

판매시기 농친것 '실기' 인정

○...한편 집행부는 안기금운용문제와 관련 "좀더 나은 값을 기대하다 보니 판매시기를 농친 부분에 대해서는 실기를 인정하나 매입(수매)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음"을 강조. 황기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 금년 안에 소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것과 앞으로 보다 책임있는 운용을 해 나갈 것임을 피력.

서식지 답사, 강원지부서

○...남정학 전무는 98사업계획안 설명에서 "효율적인 안정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행사는 강원도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하고 제5회 국산 한약재 전시행사는 지난 4회 전시행사의 실패요인을 면밀히 분석, 장소선정 등 행사 세부내용이 보다 알차게 기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긴축예산안

○...98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서도 협회는 전직원 임금을 동결하고 월 지출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긴축예산을 수립했다.

차량유지비를 전면 삭제하고 4백% 수준이던 상여금을 2백%로 삭감하는 한편 사무실의 월 임대료를 전세로 전환함으로써 나름대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애썼다.

감사선출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이번 회기로 감사 임기 만료된 허영 김천시 공판장장과 최맹호 부산 금정구 공판장장에 이어 성백덕 충남 예산군 사무소장을 새감사로 선출하고 허영 감사는 만장일치로 연임 결의하는 한편 최맹호 전 감사에 대해서는 그간의 노고에 치하하는 뜻으로 공로패를 수여기로 의견을 모았다.

"각 도 대표로 심의위원 구성하자"

○...기타 안건으로 전북 정연수 총무는 안정기금운용과 관련 "현 안정기금 심의위원 13명중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위원은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각 도별 대표 1명씩을 선정,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 "소비부진으로 판로가 여의치 못한 상황이니 만큼 황기 재고량도 각 도별 책임량을 배정 판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만 하다"고 제안.

협회장상 표창

○...그간 협회 발전과 우리 생약살리기에 남다른 노력과 기여를 해온 것으로 인정되는 회원 6명에게는 각각 협회장상을 수여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우홍(경남 남해군 사무소장) △박건수(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소장) △박재호(부산광역시 동래구 사무소장) △강이상(전북 전주시 완산구 사무소장) △함승주(강원도 평창군 사무소장) △김광호(경기도 화성군 사무소장)